

# 화순군, 5월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 외상후 스트레스 등 최대 5000만원 보장

화순군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지원 한다.

화순군은 23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원) 3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

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며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 송편 동부 재배 농가 신청 접수 영광군, 내달 3일까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역 모식잎송편 재료인 동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4년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0.1ha(300평) 이상의 면적에 동부 재배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이며 신청희망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떡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고품질 동부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동부 재배 의지가 높은 농업인이 신청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 나비축제 대비 위생점검 강화 함평군, 식품접객업소 대상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점검 강화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보건소 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의식업지부 관계자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5월 6일 축제 종료 시까지 식품 안전 점검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음식가격 표시 여부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최근 주변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 축제장 먹거리장터 및 푸드트럭 참여업소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가격 조정 협조 및 부당요금 근절을 다짐하는 등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한 위생수준과 부담없는 가격으로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겠다"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꼼꼼한 위생점검 및 가격관리를 통해 믿고 찾는 함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붉은곰팡이병 예방 방제 당부 영광군, 5월 중순까지

영광군은 최근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말·보리 출수기-개화기(4월중순-5월중순) 예방적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주로 공기 중의 붉은곰팡이 포자가 이삭에 침입, 생장하여 독소를 생성하며 연속강우 3일 이상, 온난·다습(15~30℃, 상대습도 90% 이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병에 걸리면 이삭의 낱알이 갈색-붉은색-검은색으로 점차적으로 변색되며, 발생이 심할 경우 곰팡이가 발생과 함께 알이 차지 않게 된다.

방제 방법으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출수기-개화기)에 적용약제(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캡탄 수화제 등)를 살포하고, 수확 후 관리로 수확 즉시 건조를 하면 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맥류는 수확량 감소, 미숙립 발생, 발아율 저하 등 농가 소득에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적기 방제와 포장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군은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앞두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함평군 제공

## 담양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담양군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 본사에서 담양육성 딸기(죽향, 메리퀸)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한국 재외동포 기업)이며 TSE그룹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곳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어반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담양군과 TSE그룹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TSE그룹은 담양군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도심 및 근교에 대규모 딸기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딸기 연중 재배, 재배 면적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딸기 시식 테

스트 결과, 죽향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돼 향후 담양 딸기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담양 딸기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전남농기원 '애플멜론' 전남 신소득 작목 육성

### 작과 기술 등 재배법 연구 재배 매뉴얼 개발 농가 보급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애플멜론(사진)을 전남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멜론 선호 추세도 기존 2kg 이상 대형과에서 800g 소형과로 전환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연구개발하고 있는 애플멜론은 과일 겉표면에 네트 무늬가 없는 소형과이다. 과일 내부색은 주황색으로 매력적이며



무게는 800g, 당도는 15브릭스다.

애플멜론은 고온기에 재배·수확하는 작물로 정식기, 개화기 등의 재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해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커 농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특성검정을 비롯한 정식기, 작과기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법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시설재배 관수기술 등 종합 매뉴얼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조운섭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애플멜론 등 소형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곡성 농·특산물' 세계장미축제 기간 홍보

곡성군은 다음달 17~26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리는 세계장미축제 기간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곡성멜론주식회

사 등 18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92개 품목을 판매한다. 멜론과 귤을 비롯해 가공식품 토란 영양떡, 곡성과사비, 청국장 등이 10%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판매되는 농·특산품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농산물과 음료류, 가공식품을 분리 배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농·특산물판매는 축제기간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즈팜마켓'에서 운영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 나주시 답례품 64개로 경총 기부제, 전국 시단위 1위

나주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시 단위 지자체 1위를 달성한 가운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나주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30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답례품이 기존 34개에서 총 64개로 다양해짐으로써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 다양화는 기존 한 품목당 2개 업체로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한 게 비결이다.

선정 과정에선 지역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 연계성 등 4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사업계획, 정체성과 우수성, 수행능력 등 정성평가 항목을 고려했다.

추가 신규 품목은 가공식품 14종, 농·축산물 13종, 관광서비스 2종, 수산물 1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공식품류로는 발효식품, 발사믹식초, 구운계란, 다도참주가 생막걸리, 배숙취해소제, 절굿대떡, 절굿대오란다, 양파즙과 여주즙, 꿀차세트, 토탈 찰보리빵 등이다. 농·축산물도 한라봉, 혼합과일세트, 노안 돌미나리, 대패삼겹살, 등심, 불고기 삼겹살세트, 초당옥수수, 옥수수쌀, 허니스트, 아카시아꿀, 오리구이 꾸러미, 꿀고구마, 벌화분 등이다.

김세희와 농촌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체험권을 추가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담양 상설시장 개장행사 담양군, 26~27일

담양군은 오는 26일과 27일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일원에서 '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개장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장식에 이개호 국회의원과 이병노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과 의원, 국헌주담양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다. 개장식에는 김동연 풍물패의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으로 무대를 연다. 연빛나아나운서 진행으로 김영희 명창과 가수 정철원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27일 담양시장 옥상정원에서 '언제나 봄'의 거리공연이 펼쳐지며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합산)을 제시하면 장바구니를 일 200명 한정 증정하는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담양=신재현 기자